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0.07(금) ~ 2022.10.13(목)

제공일시 2022 10 2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0.07(금) ~ 2022.10.13(목)

제공일시 2022.10.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.398.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“EU도 청정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광물 생산 규제 푼다”

- EU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 생산 증대를 위해 ‘원자재법’ 핵심전략 프로젝트 지정 승인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방안을 마련중임
- EU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, 태양광 패널,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, 코발트, 흑연 등 핵심 소재 채굴과 생산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획을 마련 중이며 프로젝트 인허가 일괄처리제도 신설, 문제발생시 해당국가 법적 절차 가속화 방안을 포함함
- EU공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, 유럽은 세계 리튬전지생산량의 1%를 차지하는데, 중국은 66%임 2050년까지 전세계 리튬 수요는 현 소비량의 6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- 일부에서는 유럽 내에서 가능한 채굴의 한계가 있다며, 역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

(에너지데일리, 2022.10.07) 변국영 기자

### 2. EU 연내 ‘태양광 연합’ 발족

-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“EU 집행위원회가 연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 등을 위해 ‘태양광연합’의 연내 발족계획을 확정했다”고 전했다
-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중단하기 위한 ‘리파워EU’ 계획의 일부로, 2025년까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, 연내 태양광 제조 역량을 연간 30기가와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
- 현재 글로벌 태양광 웨이퍼의 96%, 태양전지의 79%, 태양광 모듈의 78%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EU는 태양광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
- 13개 태양광단체들은 EU집행위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“태양광연합에 대해 EU의 반도체법과 등등한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음

(한국무역신문, 2022.10.13) 이용석 기자

### 3. 뉴질랜드, 기후변화 대응 농장 동물 트림·오줌 세금 부과 추진

- 뉴질랜드 정부는 11일(현지시간)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, 소 트림과 오줌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음
- 뉴질랜드에는 약 1000만 마리의 소와 젖소, 2600만 마리의 양이 있음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, 제안된 농장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초임 또한 농민들은 기후 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
- 이 움직임은 뉴질랜드 농업의 주요 로비 그룹인 ‘농부 연합(Federated Farmers)’과 함께 뉴질랜드 농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음
-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인 뉴질랜드 행동당(ACT Party)의 야당 의원들은 이 제안이 식량 생산에 덜 효율적인 다른 국가로 농업을 이전함으로써,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음

(글로벌이코노믹, 2022.10.12) 김세업 기자

## 1. 세계 항공업계, '2050년까지 탄소중립' 목표 합의/ [SAF의 현주소 #1] '탈탄소' 지속가능한 비행의 미래, 지속가능 항공연료(SAF)
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가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탄소중립(Net-ZERO·넷제로)을 달성하기로 합의했음 (아시아경제, 2022.10.08) 정동훈 기자  
(뉴스핌, 2022.10.08) 성은숙 기자
- ICAO 193개 회원국은 7일(현지시간)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ICAO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음
- 협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, 이들 국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와 친환경 연료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, 항공기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 계획, 마일리지 제도 등 항공권 서비스도 중단해야 함
- 한편, 최근 대한항공도 셀과 SAF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아직 SAF 사용량은 전 세계 항공유의 0.1% 수준에 불과함

## 2. 블랙록, 에너지 보이콧 주장 대처 위한 웹사이트 개설

- 블랙록이 회사가 ESG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어젠다를 추구하고, 화석연료 회사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안티ESG에 적극 반박하기 위해 '에너지 투자: 기록을 바로잡는 것'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음 (ESGToday, 2022.10.11) Mark Segal 기자
- 플로리다주는 2280억달러 연기금에 ESG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, 텍사스는 안티 ESG 금융기관 목록 대상에 블랙록을 포함한 목록을 발표했다
- 루이지애나주도 8억달러의 주 재무자금을 블랙록으로부터 뺐음 블랙록은 이러한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19명 법무장관에 서한을 보낸 데 이어, 이번 웹사이트를 통해 안티ESG운동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재무적인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
- 미국 에너지회사에 17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,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고객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취지도 설명하고 있음

## 3. 런던증권거래소,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

- 런던증권거래소가, 자발적 탄소시장(VCM)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공시기준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을 공식화했음 (ESGToday, 2022.10.12) Mark Segal 기자
- 이는 탄소배출권을 제공하고, 투자자와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시장 규제 및 공시 적용 기후완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공공 시장 자본조달 솔루션 구축을 의미함
-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는 기업들의 넷제로 발표가 늘어남에 따라,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런던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1월 VCM시장 출범 의사를 밝혔으며, 이제 런던거래소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투자펀드와 운영회사들은 IPO를 통해 자본조달을 받을 수 있고, 이 자본은 산림 조림이나 탄소 포획 등 기후완화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음

## 1. “연내 ESG 공시 최종안 나올 것… 지금부터 데이터 신뢰 확보해야” [글로벌 ESG 포럼]

- 백태영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‘2022 글로벌 ESG 포럼’에서, 기업 가치의 관점에서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갖춰야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인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공시 의무 추세에 발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음 (한국경제, 2022.10.12) 이주현 기자
- 백 위원은 ISSB 위원으로서, 기업들이 ISSB 초안에 대해 헛갈릴 만한 부분을 명쾌하게 짚었음 그는 S1에서 밝힌 공시 대상에 대해 “모든 중대한(significant)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중요한(material)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”라고 설명했다
- 다음 연사로 나선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을 소개했음 권 파트너는 “더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거나, 공시 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컸다”고 말했음

## 2. 日 ‘암모니아+석탄’ 혼용 실험… 2040년 순수 암모니아 발전 목표

- 일본의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출자해 설립한 발전회사 제라가 지난해 6월부터 헤키난화력발전소에서 연료 일부에 암모니아를 소량 혼합해 발전하는 실험을 시작함 (서울신문, 2022.10.12) 김진아 특파원
- 제라는 내년 말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2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나아가 2028년에는 50% 이상으로 비율을 대폭 늘리고, 2040년에는 100% 완전 상용 운전을 하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음
- 암모니아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고 기존 화력 발전소 시설의 일부 개조만으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음
- 또 암모니아를 20% 비율로 혼합하여 석탄 발전을 하면 순수 석탄발전보다 비용이 24% 절감되어 앞으로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

## 3. [초점] 세계 최초 ‘탄소 흡수 콘크리트’ 상용화 임박

- 캐나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상용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곧 가동될 예정임 (글로벌이코노믹, 2022.10.13) 김현철 기자
- 캐나다의 카본 제거 솔루션 전문업체 카비크리트(CarbiCrete)는 캐나다 콘크리트 제조업체 파티오드 러먼드와 손잡고, 탄소 흡수 콘크리트 양산화를 목표로 한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을 밝힘
- 콘크리트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이유는 주원료인 시멘트에 있는데, 카비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‘철강 슬래그’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며,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음
-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최고 30%나 높고 산업 쓰레기로 여겨진 철강 슬래그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단가가 낮다는 장점도 있음

### 1. “폴스타 목표는 지속가능성… 블록체인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”

- 폴스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기후 중립을, 2040년까지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힘
- 폴스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코발트와 위험물질로 분류된 운모 등 각종 원료를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관리하고 있음
- 이외에도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, 미국, 스웨덴에서 배터리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
- 프레드리카 클라렌 폴스타 지속가능성책임자는 “폴스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, 자율주행이 가능하며,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한다”며, “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함

(매일경제, 2022.10.12) 이새하 기자

### 2. ‘환경’ 지키는 뷰티업계, 공병수거에 리필패키지까지 ‘탈플라스틱’

-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포장재를 줄이거나, 스킨케어, 섶조 등 신제품에 재사용이 가능한 ‘리필 패키지’를 확대하고 있음
- 가장 활발하게 리필 패키지가 적용되는 제품군은 스킨케어로, 사용 빈도를 감안할 때, 용기 교체 시기가 짧은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용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음
- 최근에는 샴푸, 디올 등이 컬러와 케이스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음
-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오산 뷰티파크는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LG생활건강은 서울 가로수길과 이마트 죽전점에서 ‘리필 스테이션’을 운영하고 있음

(한스경제, 2022.10.11) 고예인 기자

### 3. 국내 에너지 기업들, ‘새판짜기’ 한창… ‘미래먹거리’ 선점 노력

- 국내 에너지 분야 대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술을 공유하고 원자재 공급을 위해 해외 기업과 MOU(업무협약) 등을 맺으며 국내외 협업에 나서고 있음
- 국내외 기업과 합작사 설립에 나선 곳은 GS, 포스코, 롯데케미칼, SK가스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는 공통된 미래먹거리인 만큼, 협업을 통해 선점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-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부생수소 기반 발전소인 ‘롯데SK에너지주주 주식회사’를 세워 수소충전소, 수소 공급망 및 유통 등 수송용 수소 사업에 뛰어 들 계획임
- GS에너지와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인 ‘포스코GS매너리얼즈’를 설립하고 LG엔솔과 SK온은 코발트, 리튬 등 안정적인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위해 해외기업과 MOU를 체결했음

(이투데이, 2022.10.07) 박기영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0.07(금) ~ 2022.10.13(목)

제공일시 2022.10.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.398.7675

## 글로벌 석유·석탄 기업들 탄소감축·재생에너지·저탄소 사업에 투자 늘려

### 탄소 최대 감축한 기업 1위는 에넬(Enel)

- 지난 10년 간 동종 기업에 비해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인 기업으로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(Enel)이 1위로 꼽힘. 에넬(Enel)은 2012년 이후 스코프 1 및 2 배출량을 7300만 톤 줄이면서 시장 가치를 두 배로 높여 전체 1위를 차지함
- 캐나다 미디어 코퍼레이트 나잇츠(Corporate Knights)는 상장기업 6500여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, 매출 증대와 동종 기업 대비 탈탄소를 이룬 기업 8개 부문 20개 기업 리스트를 12일(현지 시각) 발표함
- 리스트에 오른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, 석탄회사와 광산회사였음. 이 20개 회사는 지난 10년(2012~2021년) 동안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(스코프 1 및 2)을 8억6200만 톤에서 4억8900만 톤으로 43% 줄임
- 이들 회사가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의 약 3분의 2는 대부분 효율성을 높이거나 오염자산의 폐기에서 비롯됨. 온실가스 감축분 중 40% 가량은 소위 '더러운 자산'을 매각하는 것에서 비롯됨
- 1위에 오른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자산을 폐기함으로써 거의 독점적으로 탄소의 거품을 줄이는 데 성공함.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에넬이 50개의 석탄 발전소 중 40여 개를 빠르고 맹렬히 폐쇄하면서 이루어짐.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31%에서 6%로 줄인 것임. 이 기간 중 재생에너지와 전력 그리드(Grid)의 현대화에 집중해서 2021년에만 70여 개의 재생발전소를 건설했으며, 에넬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임
-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감축한 회사는 석탄을 대폭 줄인 대형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전력(American Electric Power)임. 이 회사는 석탄 감축에 집중해서 재생 에너지의 사용율을 1%에서 8%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석탄 용량을 71%에서 55%로 줄임
- 코퍼레이트 나잇츠 분석에 따르면, 이들 20개 기업의 투자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규 투자의 35%에 불과함. 이 기업들은 여전히 자본의 대부분을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억제하거나 좌초할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
- 지속 가능한 자본 지출의 측면에서, 전체적으로 20개 회사는 2030년까지 총 5280억달러(약 752조 원) 규모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예측함. 에넬이 1580억달러(약 225조원)를 투자하고,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가 1440억달러(약 205조원)를 투자해서 2021년 투자액의 85%를 재생 가능한 저탄소 전력 시스템에 투자함. 반면, 셸(Shell)의 투자 중 2.7%만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됨. 석유 및 가스 회사인 토탈 에너지는 10년 말까지 저탄소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580억달러(약 82조원)를 책정했는데, 2021년에는 29억달러(약 4조원)를 책정함
- 코퍼레이트 나잇츠는 최고 경영진 보상뿐만 아니라 주주 배당금을 비교하여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임.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보상 대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임. 그러나 20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은 저탄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주주들과 최고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함. 동종 석유회사 토탈 에너지는 28%, BP는 29%, 에니(Eni)는 59%의 비율로 저탄소 솔루션 확장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짐

(임팩트는, 2022.10.14) 홍명표 기자

(임팩트는, 2022.10.14) 홍명표 기자

- 세계 최대 가스 및 오일기업인 엑손모빌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첫 번째 상업용 탄소저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12일(현지시각) 보도함. 이번 계약은 엑손모빌이 새롭게 추진하는 저탄소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용 탄소 저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임
- 계약 체결 대상은 세계 최고의 암모니아 제조사인 CF인더스트리 홀딩스(CF Industries Holdings)로,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엑손모빌의 토지에 이산화탄소를 매장하는 사업임. 메이저 정유사에게는 이례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
- 엑손 측은 CF인더스트리 홀딩스가 루이지애나주에 2억달러(약 2850억원) 규모의 이산화탄소 압축 시설을 건설, 2025년부터 연간 200만톤 가량의 암모니아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물을 지하에 운반해 보관할 것이라고 밝힘
- 유럽의 정유사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데 반해, 엑손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석유와 가스 생산을 계속 확대하되 탄소 포집 및 저장(CCUS)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. 이러한 탄소 중심의 전략과 올해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, 엑손 주가는 현재까지 약 60% 상승함
- 2027년까지 저탄소 운영에 대한 회사의 150억달러(약 21조원) 투자 계획 중 약 90억달러(약 12조원)는 루이지애나주의 자체 현장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, 나머지는 탄소 포집, 수소 및 바이오 연료에 사용될 것임